



권오설(權五設, 1897~1930)
1926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6·10만세운동을 계획·추진하였으며,
만세시위 때 배포할 격문과 전단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러나 거사 사흘 전 사건의 전모가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다가 1930년 4월 17일 옥사하였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월간 독립기념관을 웹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독립기념관

06



만세운동



2022
June
Vol. 412

통아보기
민족협동전선의 첫발
6·10만세운동

만나보기
6·10만세운동의
세 갈래

이달의 독립운동가
한인애국단
단원이 되어
의열투쟁에 나선
이덕주·최홍식·안경근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2 June Vol. 412

06



www.i815.or.kr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물)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8551001-000092-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천안라00001

발행일 2022년 6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한시준

편집인 신용관
편 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고명재, 권동운, 김민호, 유서현, 이봉근, 이정희, 정경민,
정현희, 홍동현

思 생각

04 들어가며

2,300만 민족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06 돌아보기

민족협동전선의 첫발
6·10만세운동

10 만나보기

6·10만세운동의 세 갈래



人 인연

14 이달의 독립운동가

한민애국단 단원이 되어 의열투쟁에 나선
이덕주·최흥식·안경근

18 독립운동 사적지

한민애국단의 난징 특무활동 전개 현장

20 아름다운 인연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와
의병활동을 지원한 단양 이씨

2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일제 강제동원 피해,
오직 사과·배상만이 해결책



通 소통

26 독립의 발자취

항일과 친일, 백년 전 그들의 선택

30 세계 산책

알제리의 정신적 지주
압델 카데르

32 기념관은 지금

최초의 한미동맹을 기억하다

36 기념관 소식

38 독자 참여



2,300만 민족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우리는 일찍이 민족과 국제평화를 위하여 1919년 3월 1일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역사적 복벽주의(復辟主義)를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들의 국권과 자유를 회복하려 함에 있다.

우리는 결코 일본 전민족에 대한 적대가 아니요,

다만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통치로부터 탈퇴하고자 함에 있다.

우리들의 독립의 요구는 실로 정의의 결정으로 평화의 표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자본주의를 횡포한 일본 정부는 학살·고문·징역·교수 등 악형으로써

우리를 대하면서 경비·군비·이민·자본을 더욱 늘려왔다.

그들의 억압정책과 착취방법은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들의 생존권 전부를 박탈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피와 눈물과 통곡소리는 삼천리를 가득 메웠고,

멀리는 동경·신사·남북만주 내지는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슬프도다.

2,300만 형제자매들이여, 오늘에 있어 융희황제(순종)에 대해 궁검을 사이에 두고

통곡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감동에서 나온 것인가.

사선에 함몰된 비애로써 우리 모두 울어보자.

그러나 눈물로써 사선을 탈출할 수 없으므로, 정의의 결함을 한층 강고히 하여

평화적 요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자.

2,300만 민족의 마음과 힘이 하나가 되면 광폭한 총검도 무서울 것이 못 된다.

권오설이 작성한 6·10만세운동 「격고문」(1926)

민족협동전선의 첫발

6·10만세운동



순종의 인산(장례) 광경(1926.6.10.)

1926년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평가된다. 3·1운동을 겪은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만세시위가 크게 일어나지는 못하였지만, 국내외 민족운동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민족협동전선을 형성하여 국외 독립운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고, 신간회 설립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국내 학생독립운동에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독립운동사에 값진 열매를 맺었다.

순종의 승하를 계기로 만세시위를 추진하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융희황제)의 인산(장례)을 계기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이었다.

순종은 1926년 4월 25일 승하였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승하는 우리 민족에게 망국의 통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망곡(望哭, 장례에 몸소 가지 못하고 그쪽을 향하여 슬피 울음)과 봉도(奉悼, 존경받는 인물의 업적과 공덕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나타냄) 등 추모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러한 민족적 울분을 독립운동의 기회로 삼아 먼저 시위운동을 추진한 것은 사회주의계열의 인사들이었다. 중국 상하이에서 근거를 둔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의 김단야 등은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여 3·1운동과 같은 '제2의 만세시위운동'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와 연결된 고려공산청년회의 주도로 천도교, 조선노동총동맹과 학생 사상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이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만세시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연대를 이루며 역할을 분담하였다. 만세시위 계획의 전체적인 구상은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에서 주도하였다. 국내에서는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인 권오설을 중심으로 '6·10투쟁특별위원회'라는 지도부가 만들어졌으며, 천도교는 유력한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격문 인쇄 및 지방 연락을 맡았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소속 학생들은 만세운동의 선봉을 맡기로 하였다. 당초 지도부인 '6·10투쟁특별위원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만세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앞장서 일으키고, 지방에서는 망곡과 봉도에 참가하는 대중들을 결집해 만세운동을 벌인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5월 말까지 만세운동에 사용할 '격고문' 외 4종의 격문 5만 여 매를 인쇄하는 등 준비를 갖추어 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만세시위 계획은 거사 직전인 6월 6일 발각되고 말았다. 당시 격문의 인쇄를 천도교 측에서 맡았는데, 우연히 일경의 감시망에 걸려 천도교 총부에 감추어 두었던 격문이 발각된 것이다. 결국 천도교와 개벽사 등의 관련 인사 80여 명이 체포된 것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 인사 2백여 명이 일시에 체포되어 거사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렇듯 긴박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 의해 만세운동 계획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원래 만세운동 당일 사용할 격문을 지휘부



권오설



순종의 인산(장례)을 보도한 기사, 『동아일보』(1926.6.10.)



권오설과 6·10만세운동 관련 기사, 『동아일보』(1926.6.19.)

와 천도교 측에서 제공키로 했었다. 그러나 사전 발각으로 차질을 빚자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학생들은 사직동에 자리한 이석훈의 하숙집과 연희전문학교 뒷동산에서 급히 격문 1만여 매를 인쇄하는 등 독자적으로 거사를 준비해갔다. 그리고 만세운동 하루 전에는 학생들이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가며 각 학교와 지방에 격문과 전단을 배포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학생들만의 독자적인 만세시위 계획도 추진되었다. 중앙고보의 박용규, 이동환과 중등학교의 김재문, 황정환, 광대형 등은 순종의 인산을 계기로 3·1운동 때와 같이 전민족적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이 거사를 준비하던 곳이 통동이어서 이들을 흔히 '통동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조선민족대표' 명의의 격문을 작성하여 5천여 매를 인쇄하였다. 6월 8~9일 시내 각 학교와 전국 주요 학교에 격문을 발송하면서 인산 당일의 거사를 추진해갔다. 이 과정에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이선호와 중앙고보의 동급생인 이동환, 박용규 등이 양측의 연락을 담당하면서 양측의 연대 투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제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폭발한 만세시위

6월 10일 순종의 장례 행렬은 오전 8시 창덕궁에서 발인하여 시내를 거쳐 금곡 유릉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연도에는 순종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기 위해 30여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운집했다. 7년 전 3·1운동에 놀랐던 일제는 연도에 기마경찰과 헌병, 사복경찰로 철통같은 경계와 감시를 펼쳤다.

오전 8시 반 종로 3가에서 국장 행렬이 통과한 뒤 중앙고보 학생 이선호의 선창으로 중앙고보 학생 30~40명이 “만세”를 외쳤다. 이를 신호탄으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통동계’의 학생들은 시내 곳곳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군중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감춰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을지로 부근에서 일어난 시위는 사범학교의 담을 무너트릴 정도로 격렬했다. 동대문 앞 시위현장에서는 일제 기마병의 말발굽에 치여 70~80여 명의 군중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창신동 입구에서는 혈서로 쓴 ‘독립만세’가 적힌 태극기를 흔들며 홍종현이 단독으로 만세시위를 벌였다. 홍종현은 만세시위를 결행하기 위해 경북 의성에서 상경하여 태극기를 준비한 열혈의사였다.

그러나 일반 군중은 일제 기마병과 군경의 삼엄한 경계로 인해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못하였다. 오후 2시경까지 9개 곳에서 계속된 이날의 만세운동은 대부분 학생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1,000여 명의 학생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으며 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된 학생만 2백10여 명에 달했다. 연희전문학교 43명,

세브란스의전 8명, 중앙고보 58명, 보성전문학교 7명, 그밖에 중등학교, 양정고보, 배재고보, 송도고보 학생 등이었다. 이 중 53명이 검사국으로 넘겨져 11명이 주모자로 기소되었다.

지방에서는 6월 10일 전북 고창에서 고창보통학교(초등학교) 학생들이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인천 만국공원에서도 청년 수십 명의 시위가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봉도식이 열렸고, 많은 이들이 통곡하는 망곡을 했다. 봉도를 금지하는 학교 당국에 항의하여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방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봉도와 망곡, 동맹휴학 등으로 일제에 항거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또한 인산 당일의 시위를 목격한 배재고보 학생 문창모를 중심으로 협성학교, 피어선 성경학원, 기독교청년학원 등 기독교계통 학생들이 제2차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인산 당일의 운동이 일반 민중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한 것에 자극되어 대규모 만세시위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이들은 피어선 성경학원 기숙사에 모여 격문 수만 매를 인쇄하는 등 거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말았다.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평가된다. 시위 규모 면에서는 3·1운동이나 광주학생운동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주로 국장 당일의 짧은 기간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외향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제의 사전 경계가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3·1운동에 놀란 일제는 순종이 승하하자 전국 각처에서 1만여 명의 군대를 집결시켜 서울 시내를 포위하고 무장시위를 감행하는 등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하였다. 3·1운동의 진원지였던 탑골공원에는 중무장의 기관총 소대를 배치하며 공포감을 배가시켰다. 인산 당일에는 인도에 기마경찰, 헌병, 정사복 경관 등을 총검으로 무장시켜 물샐틈없는 경계를 펼쳤다. 그 때문에 일반 민중의 시위참여가 쉽지 않았다. 6·10만세운동은 이러한 일제의 경계와 감시망을 뚫고 일어난 만세시위운동이었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의 경험 위에서 일어난 것이었지만, 운동의 주체와 이념적인 측면에서 큰 차별성을 보인다. 3·1운동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적 결합을 이루었다면, 6·10만세운동 때에는 사회,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대함으로써 민족협동전선을 이룩해 갔던 것이다.

6·10만세운동은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만세시위가 크게 일어나지는 못하였지만, 국내의 민족운동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6·10만세운동의 민족협동전선 형성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계의 민족대당 결성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산 안창호는 7월 16일 상하이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6·10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민족적 통일기관을 조직하자고 역설하였다. 민족적 통일기관이란 주의와 이념을 초월

하여 민족적 ‘대혁명당’을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7월 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령 홍진은 시정방침의 3대 강령에서 ‘민족대당’의 조직을 천명하였다. 이후 중국 관내지역 곳곳에 ‘민족대당’ 결성을 준비하는 조직들이 생겨났다. 만주에서도 ‘민족유일당운동’이 일어나면서 독립군 단체의 통합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좌·우익의 합작 움직임은 국내에서 1927년 2월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가 결성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6·10만세운동은 국내 학생독립운동에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10만세운동 이전까지 학생운동 조직은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서울에 한정되어 있었다. 6·10만세운동에서 학생이 독자적인 민족운동 주체로 부상하면서 이후 학생운동 조직이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학생운동 조직이 전국 각처에서 결성되었으며 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식민지교육의 타파를 주장하는 등 민족적 성격을 강화해갔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학생운동 역량의 성장 위에 가능했다. 6·10만세운동은 이후 학생운동의 질적 성장에 기반이 된 것이다. 이처럼 6·10만세운동은 그 자체의 규모보다도 이후 민족운동의 질적 변화에 큰 계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승하는 우리 민족에게 망국의 통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망곡(望哭)과 봉도(奉悼) 등 추모의 물결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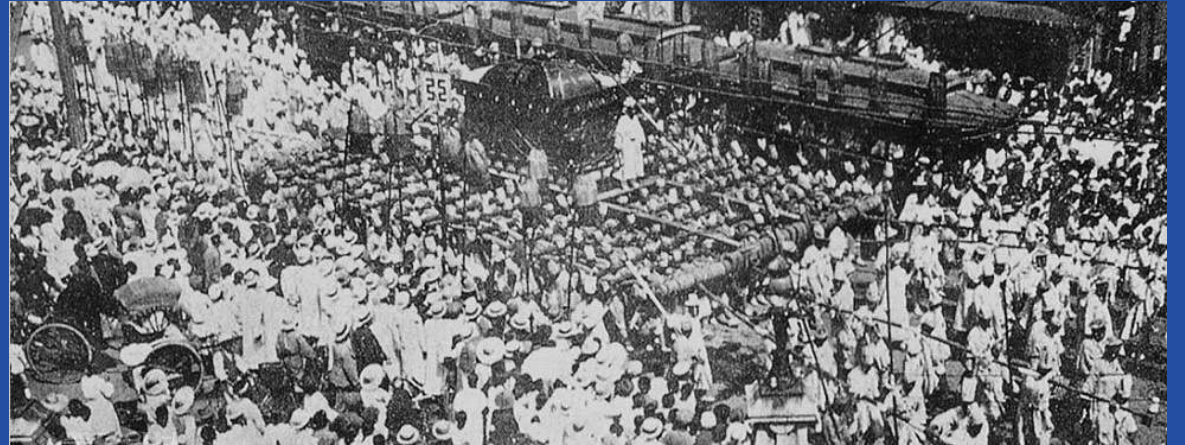
이선호



철저한 경계와 감시를 펼친 일제 기마경찰들



1926년 11월 2일 열린 6·10만세운동의 첫 공판, 『동아일보』, (1926.9.28.)



순종의 인산(장례) 광경(1926.6.10.)

6·10만세운동의 세 갈래 조선공산당계열·조선학생과학연구회·통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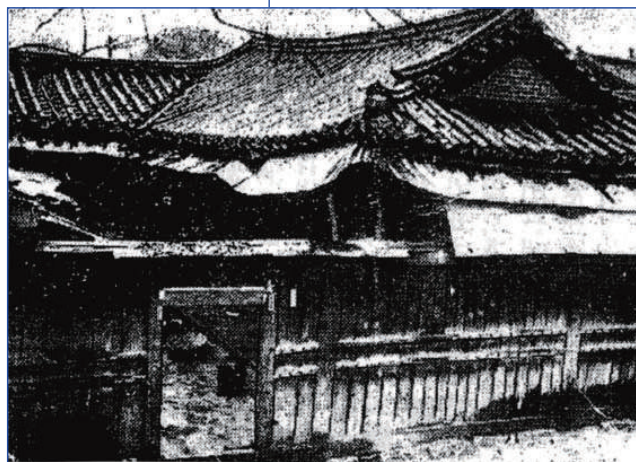
6·10만세운동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첫째는 조선공산당계열의 만세시위 계획, 둘째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한 만세시위, 셋째는 민족주의 성향의 '통동계'가 추진한 만세시위다. 이와 같은 만세시위는 3·1운동 이후 침체된 민족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안겨주었고, 민족독립운동사의 꺼지지 않는 횃불 역할을 하였다.

조선공산당계열의 시위 계획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는 성립 직후인 1926년 2월경 중국 국민당 방식과 같은 한국 민족혁명 세력의 통합조직을 구상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국민당이

만주 군벌들을 토벌하기 위해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은 '국공합작'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중국 내 정세는 민족운동계에도 좌우 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임시상해부는 국내 조선공산당을 통해 동년 3월 천도교 측과의 민족협동전선을 모색하기도 했다. 조선공산당 측은 이를 보다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메이데이(5월1일)를 기해 국내에서 대중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때 순종이 승하하자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와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권오설은 메이데이 기념 시위 계획을 철회하고 순종 인산일에 대중적 시위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운동방침을 수정하였다. 이의 실행을 맡은 고려공산청년회는 '6·10투쟁위원회'라는 지도부를 설치하고 대중시위를 전민족적



조선공산당계열 만세시위 격문 인쇄지, 감고당 민창식 집터



박래원

민창식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사회주의, 민족주의, 종교계, 청년계, 학생계의 혁명적 인사들을 망라한 전민족적 지도기관으로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공산당은 천도교 진영 및 조선노동총동맹 등과 교섭을 추진하였다.

한편 천도교 구파는 최린 등의 천도교 신파를 중심으로 자치론이 고개를 들자 이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까지 포함하여 일제에 비타협적인 세력을 망라한 민족적 조직을 구상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26년 3월 초에는 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인 강달영과 민족협동전선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6·10만세운동 추진과정에서 천도교 구파와 조선공산당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었다.

이들은 6·10만세운동의 지도 기관으로 각 항일운동 세력의 협동전선체인 '대한독립당'을 결성하고, 이 명의로 격고문을 작성 배포하면서 만세시위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권오설은 당시 천도교청년동맹 간부로서 노동총동맹의 상무위원이던 박래원과 역할을 분담하여 격문 원고와 자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박래원은 격문 인쇄와 지방 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박래원은 노동총동맹과 인쇄직공조합에 관여하던 민창식 등과 함께 만세운동에 사용할 격문 외 4종의 격문 5만여 매를 인쇄한 뒤 이를 천도교 총부 구내에 숨겨놓았다. 그러나 격고문이 발각되어 천도교 구파와 고려공산청년회 추진인사들이 체포됨에 따라 이러한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천도교는 전국적 조직기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격문을 지방의 58개 도시에 배부하고 전국을 철도선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기 책임자를 파견하여 만세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천도교 구파의 천도교청년동맹을 통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상하이에서 보내기로 했던 거사자금이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던 중 계획이 발각되어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임시상해부는 격문을 작성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을 간행하던 3·1인쇄소에서 5천여 매를 인쇄하였다. 이 격문과 거사자금을 서울의 고려공산청년회로 보냈으나, 서울의 거사 계획이 발각됨에 따라 전달되지는 못하였다. 고려공산청년회와 천도교 구파가 계획했던 만세시위는 좌절되었지만, 추진주체의 한 축이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산 당일 만세시위가 전개될 수 있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의 시위 추진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5년 9월 창립되었다. 사회주의계열 학생들과 진보적 민족의식을 지닌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당초의 명칭은 '학생사회과학연구회'였으나 일제가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를 금지함에 따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변경하였다. 당시 '사회과학'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를 뜻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사회주의의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사상단체'를 의미했다. 강령으로 '과학연구와 과학사상의 보급을 기함, 조선학생의 사상통일과 상호단결을 도모함, 인간분위 교육의 실현과 조선학생의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기함'을 제시하였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서울 소재 중등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6·10만세운동 당시 회원이 5백여 명에 달하였다.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생 사상단체였으나 회원들이 모두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초기 간부진은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한 학생과 민족주의적 성향의 학생이 혼재되어 있었다. 사회주의계열 학생들의 경우 제2차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인 권오설의 강력한 지도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진보적 민족의식을 지닌 학생들은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주의 사상 연구와 보급'에 공감하였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통해 사회의식을 제고해 갔다.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지도력이 일정하게 관철되고는 있었지만,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은 조선공산당의 산하단체라기보다 민족, 계급문제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순종이 승하하자 5월 3일 권오설이 이병립에게 인산 당일 가두행렬에서의 만세 선창과 격문 살포를 지시하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만세시위계획이 본격화되었다. 이병립은 고려공산청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들
(왼쪽부터 박두중, 박하균,
이천진, 이선호, 이병립)

년회의 간부이자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간부이기도 했다. 이병립 등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간부들은 5월 20일 각 학교 학생대표들을 소집하여 거사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병립, 이선호, 이천진, 박두중, 박하균 등이 준비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이후 학생 동원 등을 준비하던 중 6월 6일 고려공산청년회와 천도교 측의 격문이 발각되어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자, 이들은 독자적으로 거사를 추진해갔다. 이병립의 주도하에 6월 8일부터 태극기 200여 매와 깃발을 만들고, 격문을 기초하여 인산인 전날 격문 1만여 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6월 10일 인산 당일의 만세시위를 예정대로 단행할 수 있었다.

‘통동계’ 학생들의 시위 추진

이른바 ‘통동계’는 6·10만세운동 추진세력 중에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는 별도의 고등보통학교(지금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말한다. 중앙고보의 박용규, 이동환과 중등학교의 김재문, 황정환, 광대형 등의 학생들로서 뚜렷한 조직체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만세시위를 계획, 준비하여 거사에 참여하였다. 지방에서 서울에 유학한 학생들로서 평소에 교우관계가 있었던 이들은 하숙집 등을 거점으로 거사를 추진하였다. 이들의 하숙집이 통동에 있어서 흔히 ‘통동계’ 학생들로 불린다. 이 중 박용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결집한 세력은 아니었으나, 밀접한 인적교류와 고양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지 규합에 나섰다. 일주일 만에 5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5월 23일 촉구시합을 위장하여 모임을 가졌다. 이때 이동환은 총독부를 비롯한 일제기관과 일본인 집단거주지인 충정로 일대 폭파 등의 강력한 투

쟁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동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이후 주도 학생 5명은 다시 논의를 거듭하여 인산일을 기해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생활비와 학자금으로 거사 물품을 구입한 후 5월 29일 통동 김재문의 하숙집에서 격문을 작성하였다. 5월 31일까지 박용규의 하숙에서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 만세!’라는 격문 5천여 매를 인쇄하였다. 각자 1천여 매의 격문을 맡아 동지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6월 8일과 9일에는 시내 각 학교와 전국 주요 학교에 발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이선호와 중앙고보 동급생인 박용규, 이동환 등이 양측에서 연락을 담당하면서 연대투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통동계’ 학생들의 만세시위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대중적인 만세시위운동을 추진하여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학생운동의 또 다른 성장을 보여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김재문

‘통동계’ 학생들이 만세시위 격문을 인쇄했다는 기사,
『동아일보』(1927.3.26.)

激文印刷도是認
조선○○는얼만하는바라고
朴龍圭 는작년오월이십구
일 동지네사람과 함께 통동계(通洞界)를
설립한바다 박용규의 하숙에
서(학원동)梨園洞(이택오십오
번다 김성근(金性根)로부터 등
사판한개를어디다가 격문(激文)
을인쇄하였다는등의사실을
전부시인한후 인산당일 만세
를하는것은 그회를리유한이오자
그는지금도 조선○○를말하
고있다(그때는)을하였다. 현하
郭載炯 도친박용규와가
를서실한번한후 자기도역시
조선○○를말한다는답변이
있었고 그다음
黃廷煥 은역사사실만은시
인하였으나 재판장은조선○○
을하였다

金載文 은역사사실을전부
시인한외에 자기도조선○○를
말한단다는말로써 답변을받
고 마즈막으로
李東煥 은역사사실을시인
한외에 인산당일 만세를부르자
고 약속을한학생들이 그날만세
를못부르고 다라는 것을볼새
에『왜이와가친문과들이안는가』
고크게개탄하였다는말로써답변
을하였다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독립 만세!’

‘통동계’ 학생들이 배포한 만세시위 격문 중

한인애국단 단원이 되어 의열투쟁에 나선 이덕주·최흥식·안경근



이덕주(李德柱)
1908~1935
애국장(1990)



최흥식(崔興植)
미상
애국장(1991)



안경근(安敬根)
1896~1978
독립장(1977)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애국단을 결성하다

1930년대 일제의 침략전쟁에 맞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1년 말 국무회의에서 특무대를 통해 ‘의열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단체 조직·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은 김구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을 결성하고 청년들을 단원으로 모아 일련의 특공작전을 계획·준비하였다. 단장 김구와 청년 단원들로 구성된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의 도쿄 의거를 시작으로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등 1932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쿄(東京), 상하이(上海), 다롄(大連) 등지에서 일제 침략기구 및 침략자 처단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덕주와 최흥식, 일제 침략자 처단 의거에 나서다

이덕주는 황해도 신천(信川)에서 태어나 과수업, 재목상 등을 하다가 20세 때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대한교민단(大韓僑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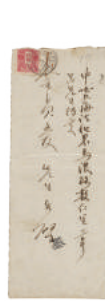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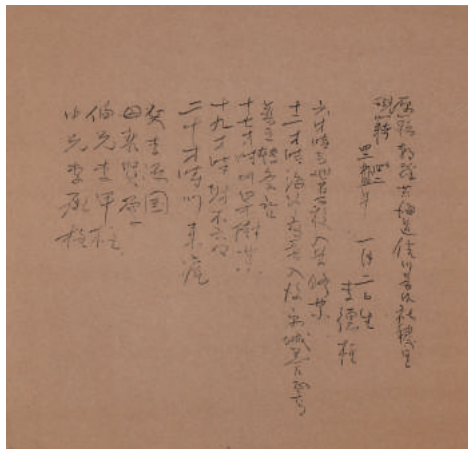
團)에서 의경대원 등으로 활동하며 김구와 교류하다가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였다. 1932년 3월 김구에게 의거 자금과 무기 등을 받고 조선총독 처단을 위해 국내로 파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신천에서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된 유진식(兪鎭軾)과 함께 의거를 준비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최흥식은 서울에서 태어나 인쇄소 견습생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20세 때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2년 이봉창 의거 등을 접한 후 한인애국단에 입단한 그는 일제 고위관료 처단을 위해 다롄으로 향했다. 그는 5월 ‘만주국’ 수립 문제 조사를 위해 파견된 국제연맹조사단을 접견하는 일제 고위관료 처단을 준비하다가 김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각돼 유상근(柳相根)과 함께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일제 침략자 처단 의거에 나선 한인애국단원들의 공훈을 기려 이덕주(1990)와 최흥식(1991)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와 청년 단원들

(왼쪽 왼쪽부터 최흥식, 유상근, 미상, 아랫줄 김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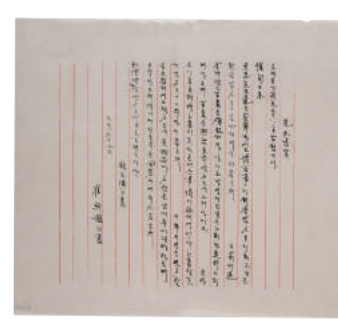
이덕주가 한인애국단에 입단하며 작성한 이력서.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이덕주가 김정애(김구로 추정)에게 보낸 편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최흥식이 광운(김구의 다른 이름)에게 보낸 편지.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대련작탄사건의 추억」 『한민』 제3호 (1936.5.25.)

안경근, 한인애국단원의 뜻을 이어 나간다

안경근은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1921년 중국 상하이 망명 후 원난육군강무학교(雲南陸軍講武學校)에서 수학하였고 1926년 황푸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5기생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말 한인애국단이 결성되자 단원이 된 그는 1932년 4월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의 결실로 1934년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뤼양(洛陽) 분교 내에 한인특별반이 설립되자 생도계를 맡았고, 한국특무대독립군(韓國特務隊獨立軍)에서는 조사부원을 담당해 군사인재 양성에 힘썼다. 또한 1937년 임시정부 군사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임시정부 활동도 이어 나갔다. 정부는 한인애국단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독립운동을 전개한 안경근의 공훈을 기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우리가 허다한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끝내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에게겐 무기가 없고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용기만을 가진 한국 사람인지라. …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런 강렬한 행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인애국단 선언』 중 (1932.8.10.)

”

임시정부가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안경근 등 6인을 상무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기사, 『한민』 제15호 (1937.7.30.)



난징(南京) 한국특무대독립군 본부 터 일대



한인애국단원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한 안경근·이덕주·최홍식



1

1931년 7월 '완바오산(萬寶山) 사건' 등으로 한·중 양 국민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제는 9월 중국 동북지역을 침략했다. 일제의 침략전쟁은 더욱 확대되어 1932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上海)까지 침공했다.

2

비상대책을 모색하던 임시정부는 1931년 말 국무회의에서 특무대를 결성하기로 하고 조직 운영의 모든 권한을 김구에게 맡겼다.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단장이 되어 의열투쟁을 준비했다. 청년 단원들은 1932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쿄, 상하이, 다롄 등지에서 의거에 나섰다.



3

1932년 1월 이봉창의 도쿄 의거, 4월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가 수행되는 동시에 한인애국단은 또 다른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덕주는 상하이에서 대한국민단 의경대원 등으로 활동하며 김구와 교류하다가 한인애국단에 입단했다. 그는 1932년 3월 조선총독 처단을 위해 국내로 파견되어 의거를 준비하다가 피체되었다.



4

최홍식은 이봉창 의거 소식을 접한 후 한인애국단에 입단했다. 1932년 3월 중국 다롄으로 향한 그는 일제의 중국 침략 진상조사를 위해 다롄으로 파견된 국제연맹조사단을 맞이하는 일제 고위관료를 처단하기 위해 의거를 준비하다가 피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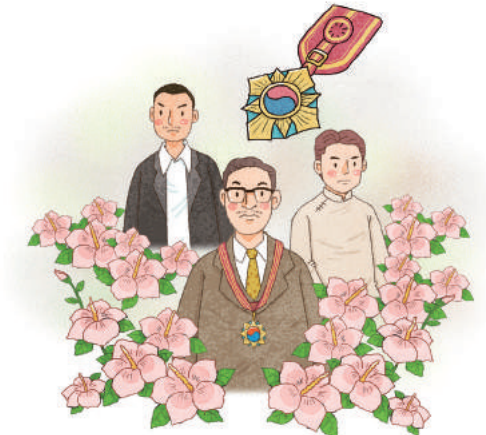


5

안경근은 1931년 말 한인애국단이 결성되자 단원으로 가입한 후 단장 김구를 보필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32년 한인애국단 의거 후 중국국민당 정부는 중앙육군군관학교 휘양분교 내에 한인특별반을 설립했다. 이때 안경근은 한인특별반 생도계, 한국특무대 독립군 조사부원 등으로 활동하며 항일특무활동을 펼쳐 한인애국단의 뜻을 이어 나갔다.

6

1930년대 일제의 침략전쟁에 맞서 한인애국단원이 된 청년 단원들은 일제 침략기구와 침략자 처단을 위해 의열투쟁을 전개하며 독립의지를 널리 알렸다. 정부는 단원들의 공훈을 기려 안경근(1977)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고 이덕주(1990)와 최홍식(1991)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한인애국단의 난징 특무활동 전개 현장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찾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거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차단해 일제에 큰 충격을 줌으로써 대외침략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김구는 일왕을 차단하기 위해 1931년 12월 16일 이봉창 대원을 극비리에 도쿄로 잠입시켜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를 감행하였다.

상하이에서 조직된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초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 침체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특무활동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이끌었고, 간부는 김석(金皙)·안궁근(安恭根)·이수봉(李秀峰) 등이 맡았으며, 단원으로는 윤봉길(尹奉吉)·이봉창(李奉昌)·최흥식(崔興植)·유상근(柳相根)·이덕주(李德柱)·유진만(俞鎭萬)·김의한(金毅漢) 등이 참여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거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차단해 일제에 큰 충격을 줌으로써 대외침략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김구는 일왕을 차단하기 위해 1931년 12월 16일 이봉창 대원을 극비리에 도쿄로 잠입시켜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를 감행하였다. 이밖에 1932년 4월에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 이덕주·유진만의 조선총독 처단 시도, 최흥식·유상근의 일본 고관 처단 시도가 이어졌다. 한인애국단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임시정부 요인 및 한인애국단원 체포에 혈안이 됐다. 결국 항저우로 이동해 임시정부관공처를 설치

한 김구는 의열투쟁보다는 군대 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인애국단원의 일부를 난징군관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군사력 확보에 매진하였다.

난징에서 추진한 다양한 특무활동

김구는 난징에 정착한 후에 중앙육군군관학교(中央陸軍軍官學校) 뤼양분교(洛陽分校)에 한인특별반(韓人特別班)을 설립하여 군사간부를 양성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수활동을 전개하는 '특무기구'를 조직하였다. 난징지역에서 활동했던 한인애국단원은 안궁근과 안경근 등 6인으로

유엽가(柳葉街) 56호에 거주하였다. 이곳에는 중앙육군군관학교 입학 준비생 7명도 함께 기거했다. 한인애국단은 1934년 9월 거점을 목장영(木匠營) 고안리(高安里) 1호로 옮겼다. 고안리 1호는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3층 건물이었으며, 임대료는 한달에 35원을 지불하였다. 1층은 학생들을 위한 장소였고, 2층은 양동오(梁東五)와 이마석(李摩石), 3층에 노태연(盧泰然)이 거주했다.

1934년 12월 말 한인애국단은 고안리 1호에서 특무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했다. 한국특무대독립군(韓國

特務隊獨立軍)이 바로 그것이다. 한인특별반 입교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특무대독립군은 군사적 성격을 갖는 일종의 특무활동을 위한 기구였다. 단원은 한인애국단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인특별반 입교생들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1935년 10월 3명의 대원이 일경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탄로되었고 결국 1936년 1월 해산되고 말았다.



난징 한국특무대독립군 본부 터(목장영)

한인애국단 및 한국특무대독립군이 거주했던 장소이다. 현재 난징에서는 고안리라는 지명이 사용되지 않는다. 당시 지도를 통해 고안리 1호를 확인했으나,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어 있어 명확한 장소 비정이 어렵다. 빌라 단지로 번모된 블록 전체를 비정할 필요성이 있다.

주소 중국 난징시 진화구 목장영소구 일대



목장영 일대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와 의병활동을 지원한 단양 이씨



1921년 극동피압박민족대회 당시 홍범도(ХОН НЕМ-до는 홍범도의 러시아 이름)

홍범도는 단양 이씨와 인연을 맺고 미래를 약속했다. 이씨는 일제의 고문에 시달려 눈감는 순간까지도 남편의 의병활동을 지원했으며, 홀로 두 아들을 책임졌다. 홍범도가 일본군과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둘 수 있던 배경에는 이씨의 송고하며 위대한 희생이 있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청년 홍범도

홍범도는 1868년 8월 평안남도 평양 보통문 안에 있는 문열사에서 가난한 농부 홍윤식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남양, 호는 여천(汝千)이다. 영양실조에 걸린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젓동냥하던 아버지마저 그의 나이 9세 무렵 세상을 등졌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풀머슴과 떠돌이 생활의 연속이었다. 불우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나팔수로 입대했으나, 이마저도 만만치 않아 다른 길을 찾았다. 물론 군에서 배운 군사훈련과 사격술은 훗날 독립전사로서 발돋움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황해도 수안 제지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임금 문제로 주인과 갈등이 겪고 다시 유랑 생활을 시작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승려가 된 홍범도는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과 승려의병장 서산대사·사명대사의 삶을 배우며 항일의식을 일깨웠다. 이때 첫 번째 부인 단양 이씨를 만나 인연을 맺었지만,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헤어졌다. 이후 홍범도는 광산노동자로 일했으며, 북청에 정착하여 소작농과 산포수로서 값진 수입을 올렸다. 이씨와 첫아들 양순을 7년 만에 만난 홍범도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았고, 이 무렵 둘째 아들 용환이 태어났다.

홍범도



게릴라 전법으로 수십 차례 승리를 거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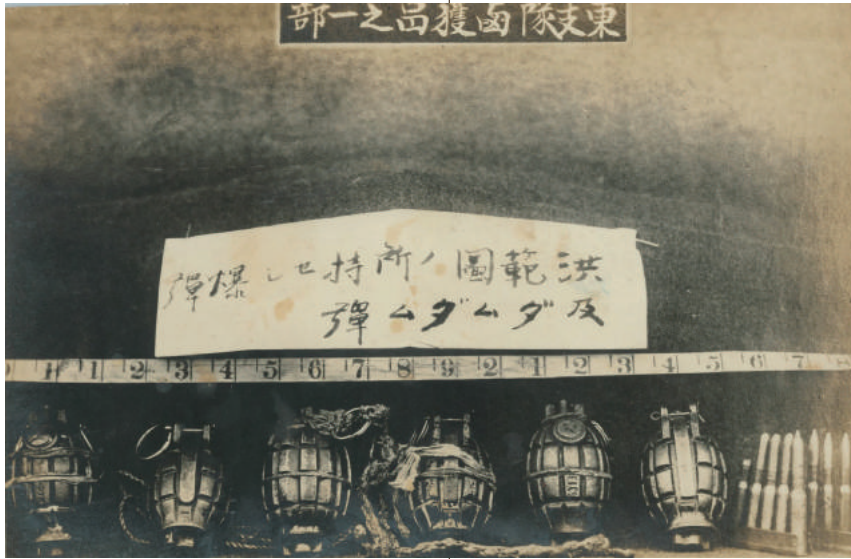
러일전쟁이 발발할 즈음, 항일투쟁 물결 또한 크게 일어났다. 홍범도는 포수조직인 엽인계(獵人契)를 이끄는 포연대장(捕擧隊長)으로 추대되었다. 포연대장은 관리들과 교섭하여 포획물의 양을 정하고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직책이었다. 홍범도는 관청에서 포수에게 부과하는 가혹한 세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투하였다. 지방관리들은 그를 위협하고 매수하려 했지만 끝내 세금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동료들의 신망을 얻었다.

1907년에 일제는 군대해산 이후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공포하였다. 일제의 국경수비대는 백두산 일대 포수들의 무기를 회수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데 혈안이였다. 그해 11월 홍범도는 태양옥·차도선 등과 함께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포수들을 집결시켰다. 이들은 후치령을 근거지로 일본군을 공격하고 우편마차를 탈취하였다. 일본군을 유인하여 섬멸하거나 군용화물차를 습격하는 등 갑산·혜산진·삼수·북청 일대를 교란하였다. 의병 1,000여 명을 모아 군량도감 등 부대의 진용을 갖추고 격문과 포고문을 돌리면서 게릴라 전법으로 수십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일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으나 맞대응이 어려워지자 회유와 귀순공작에 열을 올렸다.

비극적인 상황에도 멈추지 않은 항일투쟁

차도선이 귀순공작에 넘어가고, 태양옥이 함정에 걸려 체포당하자 일제는 끊임없이 홍범도의 귀순공작을 벌였다. 1908년에 들어 일본군 북청수비구 사령부는 홍범도 귀순공작의 한 방법으로 그의 가족을 잡아들였다. 일제는 이씨에게 귀순을 강요하고 남편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라고 압박하였다. 그녀는 일제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응하지 않다가 모진 고문에 시달려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첫째 양순은 아버지를 따라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하였고, 둘째 용환은 살인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은 뒤 폐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도 홍범도는 흔들리지 않고 반일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당시 그가 고심한 문제는 원활한 탄약 공급이었다.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던 의병들



홍범도부대가 사용한 수류탄과 탄환

은 강력한 일본군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는 청나라와 러시아의 탄약 지원 교섭에 나서기 위해 동지들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을 찾았다. 일제는 삼수·갑산 일대에서 의병활동이 사라지자 밀정을 풀어 그의 행방을 쫓았다. 그를 체포하려는 일제수비대가 연해주 일대에 파견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연해주에서 군비를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홍범도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동지들을 함께 북청·갑산·혜산 일대에서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술국치 직전에 홍범도는 창바이현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둔전을 일구며 군량미를 공급하였다. 또한 연해주·만주 그리고 국내 의병진과 연계를 모색하였지만, 탄약 고갈로 의병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의병부대를 해산하였다. 이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후 노동회(勞働會)를 조직하고 군자금을 비축하며 때를 기다렸다. 이때부터 독립군을 창건할 때까지 국경 일대에서 게릴라전이 10여 년 동안 전개되었다.

대승리를 이룬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항일

운동단체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룡징·훈춘·창바이현 등지에서 대대적인 만세시위와 더불어 일제 식민통치기관을 습격하는 등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창바이현에서는 천도교도들이 일본헌병대를 습격하였다. 홍범도는 안도현 명월진에서 의병출신들과 한국청년 및 산포수 등을 모아서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을 창설하여 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독립군을 이끌고 혜산진·갑산의 일본군을 습격하였다. 이어 백두산에 근거지를 두고 두만강 연안인 자성·강계·만포진·회령 등지에 있는 일본군과 경찰관서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일본군은 대대병력으로 홍범도부대가 주둔하는 봉오동(현 투먼시 봉오동저수지 골짜기)을 전면 공격하였다. 당시 독립군은 400여 명, 일본군은 남양수비대 병력을 포함해 300여 명이었다. 1920년 6월 7일 네 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피가 넷물을 이루자 정적을 되찾았다. 홍범도부대는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며 대승리를 거두었고, 독립군의 손실은 전사 4명, 중상 1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유명한 ‘봉오동전투’이다.

봉오동전투는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였다. 이후 변화되는 정세를 직감한 홍범도는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김좌진·안무·최진동 등 군사지도



봉오동전투 현황도(1920.6.)

자들과 합동작전을 모색하였다. 1920년 북로군정서에서는 러시아로 사람을 보내 멘셰비키 당국과 교섭하여 기관총 등 다량의 무기를 구입하였다. 당시 홍범도는 직속 부대원 3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마침내 1920년 10월 21일 백운평전투를 시작으로 청산리와 어랑촌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독립군은 뛰어난 전술로 우수한 화기를 지닌 일본군을 농락하였다. 6일 동안의 혈전 끝에 일본군이 크게 패배하였다. 일본군의 피해는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을 포함, 전사자 1,254명이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인명피해가 3천여 명에 달하였다. 독립군의 전사자는 200여 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청산리전투’이다.

비장군(飛將軍, 용맹한 장수)으로 불리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독립군은 일제의 공격을 피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도시인 헤이허로 이동하였다. 당시 레닌의 적군은 한국독립군에게 협조적이었으나 일본군이 침공 및 항의를 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볼셰비키는 일본군이 철수조건으로 한국독립군의 해산을 내걸자, 대한독립군단의 무장해제를 요구하였다. 적군은 강제로 독립군의 무장을 해제하였고, 반대하는 독립군을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내부 갈등이 유발되었지만, 홍범도는 중립을 지켰다. 이후 김좌진·지청천 등은 다시 중국 동북지역으로

일본군의 피해는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을 포함, 전사자 1,254명이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인명피해가 3천여 명에 달하였다. 독립군의 전사자는 200여 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청산리전투’이다.

되돌아갔고, 그는 러시아 연해주에 새로운 활동근거지를 마련하였다. 레닌을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했으며,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극동인민대표회의에 김규식·여운형 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모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홍범도는 그곳으로 이주하여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으며 재혼한 아내와 여생을 꾸려 나갔다. 그는 집단농장 관리와 극장의 경비를 맡으며 세월을 보냈다. 평생 별호를 짓지 않았으나 민중은 비장군(飛將軍, 용맹한 장수)으로 불렀다. 그는 1943년 10월 25일 중앙아시아의 크즐오르다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의 묘 앞에 동상을 세우고 그 아래 사적을 기록해두었고, 고려인 동포들은 그의 기일이나 설날이면 어김없이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등 독립정신을 높이 기렸다. 유해는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국내로 봉환되었다. 정부는 홍범도에게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2021년 단양 이씨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크즐오르다 홍범도 묘역 전경





일제 강제동원 피해, 오직 사과·배상만이 해결책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일제 조선인 강제동원(징용·징병 등)에 따른 피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번 호에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과정을 짚어보며, 역사적 의미와 함께 현주소를 살피고자 한다.

광복 직후 이뤄진 피해보상요구 운동

식민지 조선에서 강제동원이 이뤄진 것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다. 일제는 군수물자와 노동력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동원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다. 이를 근거로 1939년 7월 7일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여 이를 조선 등 식민지에 자행했다. 그 뒤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징용 적용 범위를 확대해갔다. 대상은 만 16~40세 청년이었으며,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사할린·태평양 군도 등으로 동원하였다. 끌려간 청년들은 탄광·군수공장·비행장·건설공사장 등에서 1일 12시간 이상 노역해야 했고, 끝내 많은 이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광복 직후 한국정부 수립 이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직접적인 보상 요구 운동을 벌였다. 또한 희생자 유족들 중심의 동인회, 태평양동지회 등 단체를 조직하여 국회에 ‘대일 강제노무자 미제임금 채무이행 요구’를 촉구하는 한편, 미군정청의 전쟁피해조사에 협력하여 피해신고 등의 형태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냉전 격화와 한국전쟁 발발, 반공이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현실 타협’한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두 나라 사이의 과거사 문제와 한국정부의 대일청구권 또는 대일민간청구권 문제를 덮은 채 체결되었다. 양국은 ‘청구권’의 의미를 대일협상 과정에서 몇 단계에 걸쳐 변질시켜 ‘청구권’의 함당성을 애매하게 처리하였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만 남기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정부가 처음부터 안전 상정을 거부한

국가청구권을 유보하는 대신에 민간청구권을 중심으로 일본과 타협한 것이다. 이는 월권이자 위법으로 헌법을 짓밟는 행위였다. 일본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민간청구권 소송을 기각하였다.

1966년 2월 19일 한국정부는 ‘민간청구권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한다’는 법을 제정하고, 1975년 7월부터 1977년 6월까지 군인·군속·피징용 사망자 유족 8,552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총액 25억 6,56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증거 불충분 및 자료 미비 등으로 신고를 거부당하거나 보상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적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사회적인 편견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1980년대 말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룩하고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치유와 배상을 큰 목소리로 요구하게 되었고, 1990년 10월 희생자와 유가족 22명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을 상대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1년 1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총리에게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사람이 할복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소송의 물꼬를 트다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이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인간 존엄 회복과 일본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일본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소송 결과는 참담했다. 한국인들의 소송과 관련하여 1990년대 제기된 29건의 판결 중 승소한 것은 1심 판결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위안부’ 원고들의 청구 중 일

부만 받아들였다. 그 뒤 1999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강제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모든 자 또는 그 이익 승계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물꼬가 터졌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은 미국에서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 5월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를 기회로 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1심 제소 후 3심 판결까지 무려 12년 11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그렇다고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잇달아 패소 또 패소

2001년 3월 27일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징용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방재판소는 원고들이 노동자 모집을 보고 스스로 지원하였기에 강제연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 신일본제철의 노동자 모집은 ‘국민징용령’에 따른 것이라며 징용의 불법성을 부인했다. 또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는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설사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항소했지만, 2002년 11월 19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년 10월 9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해자들은 앞선 청구이유로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동일하다거나 구 일본제철이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일본 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광복 6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본 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과거 청산으로 가는 첫발

을 의미했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를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일본정부는 ‘대상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한국 내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의 눈물, 언제 그칠 수 있을까

2021년 6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라며 대상판결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정부가 일본의 자금지원을 대가로 대일청구권을 포기한 ‘청구권협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도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한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거나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등의 일방적인 정치·외교적 가치 판단을 판결에 개입시킨 꼴이었다. 이는 사법부가 피해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긴 판결이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한 일본 측의 배상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 보상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 매켄지가 양평에서 찍은 의병 사진(1907)
← 청사 조성환이 쓴 가방_여주박물관 소장



항일과 친일, 백년 전 그들의 선택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또는 친일을 선택한 인물들을 재조명해보고, 역사의 갈림길에서 상반된 선택을 내린 이들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항일과 친일, 백년 전 그들의 선택> 전시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경기도박물관 박본수 학예연구사에게 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조병세 순국에 재일본유학생회가 보낸 제문(1905).
경기도박물관 소장(조범식 기증)

↓ 병합기념조선사진첩(1910)_식민지역사박물관 소장



Q <항일과 친일, 백년 전 그들의 선택> 전시를 소개해주세요.

이번 전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항일 독립운동과 친일파에 대해서 조명하는 특별전으로,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경기도에서 펼쳐진 의병활동과 3·1만 세운동의 장소 및 인물을 기리고,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얻은 친일파 및 일제잔재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킴으로써 역사의 엄중함과 국가·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Q 항일과 친일의 역사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1910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일제강점기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며 지울 수 없는 상처이지요. 일본의 침략과 국권 강탈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3·1만 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국내외의 항일운동과 무장 독립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한국은 수십 년간 식민지라는 암울한 터널을 지났지만, 치열한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부끄럽지 않고 초라하지 않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Q 이번 전시는 어떻게 마련되었나요?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5월 20일 제정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한 전시입니다. 또 최근 수년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경기문화재단연구원, 지역문화교육본부, 경기도박물관)이 수행한 여러 사업의 결과물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일제감시 대상카드,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헌증 시설 자료, 문화재청의 자료 등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조병세, 김병엽, 박찬익 관련 유물 등 그간 경기도박물관이 기증받은 근대 및 독립운동 관련 유물이 이번 전시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의 후원과 함께 안성3.1운동순국기념관 등 경기도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개인 소장이 등 여러 곳으로부터 유물과 자료, 이미지와 영상물 협조를 받아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Q 눈여겨 볼 자료를 소개해주세요.

1906년부터 1907년까지 2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의병전쟁 지역을 답사한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 기자 출신 매켄지(Frederick Arthur Mackenzie, 1869~1931)는 1907년 11월 7일과 8일 삼산리 전투가 벌어진 직후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1908년 『대한 제국의 비극』을 출간하여 자신이 목격한 일제의 만행과 의병들의 저항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가 찍은 의병 사진은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고, 이 사진은 2018년 방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병의 실체를 글로만 배웠을 것입

니다. 이번 전시에서 매켄지의 저서와 사진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Q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끄는데요.

전시장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제작한 주홍 작가의 샌드 애니메이션 <도마 안중근>을 비롯하여 모두 8개의 영상물이 상영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과 지역사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이 발간한 『우리 지역 일제잔재를 찾아라』의 PC 검색 코너, 경기일보의 기획기사 '경기도의 독립운동을 만나다' 등을 QR코드로 확인하는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최근 국가보물로 지정한 '대니 태극기' 등 3종의 태극기를 소개합니다. 포토존은 1942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현재의 국회)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체험존은 '소망나무에 메시지 달기', '태극 바람개비 만들기', '나라사랑 태극기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Q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그간 역사연구기관이나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친일을 일부 소재로 삼아 소개한 전시는 있었지만, 전시의 대표 주제로 선정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백년 전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측했을까?'라는 물음표를 새겨보시길 바라며, 또한 '백년 전 우리는,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의 주요 전시품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서화·판화·유화·사진·신문·도서·엽서·영상물 등 200여 점이며, 제1부 ‘대한제국의 비극, 그들의 선택’, 제2부 ‘항쟁과 학살, 그날 그곳을 기리다’, 제3부 ‘친일(親日)과 일제잔재(日帝殘滓)’, 제4부 ‘유물로 만나는 경기도의 독립운동가’ 등 모두 4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 ‘대한제국의 비극, 그들의 선택’

한말과 대한제국기에 펼쳐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침탈의 모습을 그린 임오군란(1882),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정미의병(1907) 관련 유물과 죽음으로 일제에 항거한 순국열사 조병세, 최익현, 민영환, 이한응의 유품을 소개한다. 또한 무장독립항쟁을 위해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한 이석영 6형제에 관한 영상물, 지조를 지키는 마음을 표현한 윤용구, 안중식, 오세창, 한용운의 서화 등을 전시한다.

제2부 ‘항쟁과 학살, 그날 그곳을 기리다’

3·1독립만세운동과 화성 제암리 학살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한다. 국내외에서 전개된 3·1독립만세운동은 총 1,692회에 최대 100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운동이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적이고 격렬한 만세운동이 총 367회 전개되었으며, 참여인원도 17~20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에 4월 15일 일본군이 지금의 화성시 제암리에서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만행사건이 일어났다.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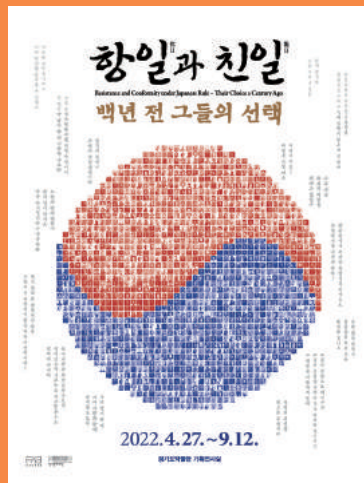
에 걸린 대형 유화 <제암리 뒷동산 만세소리>(1983년, 김태 작)와 영상물 <4월의 어느 날>(2분 50초)은 화성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에서 제공한 것이다.

제3부 ‘친일과 일제잔재’

경기도의 대표적 친일파 10명(이완용, 송병준, 박제순, 이재곤, 박영호, 박필병, 민원식, 홍사익, 조희창, 홍난파)과 송병준·송중헌 부자의 공덕비 및 팔굉일우(八紘一宇, 세계를 천황 아래에 하나의 집으로 만든다) 관련 자료와 탁본을 전시한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파를 ‘을사늑약(1905) 전후부터 광복(1945)까지 일제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한민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서 활동 흔적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일제잔재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기간에 일본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생산되거나 정착하였음에도 광복 이후 청산되지 못한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 친일잔재는 ‘친일 논리의 영향을 받은 유무형의 유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4부 ‘유물로 만나는 경기도의 독립운동가’

경기도 출신 중 주요한 독립운동가 류근·박찬익·신익희·안재홍·엄항섭·여운형·조성환·조소앙 등의 유물을 전시한다. 특히 여주박물관이 소장한 조성환 유품, 경기도박물관이 기증받은 파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찬익 일가의 유품, 평택의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가 소장한 안재홍 유품 등이 전시된다.



전시장 입구

제1부



제2부



항일과 친일.



제3부



제4부

백년 전 그들의 선택



체험존 및 포토존

알제리의 정신적 지주 압델 카데르 Abdel Kader

1830년부터 1962년까지 프랑스 식민지배에 대항한 알제리 국민 모두가 독립영웅이라 할 수 있지만, 그중 국민을 하나로 묶으며 오늘날 알제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가 있다. 알제리의 정신적 지주라 일컫는 압델 카데르이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 세워진 압델 카데르 기마상



식민지배에 대항한 알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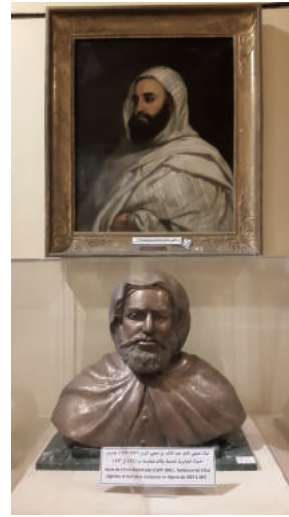
북아프리카에 자리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132년(1830~1962) 동안 받은 국가이다.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모로코, 튀니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혹한 식민지배를 받았다. 독립 과정 또한 치열했다. 프랑스를 상대로 한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에는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알제리의 민족성과 단결성을 보여주었다. 8년간 걸친 전쟁에서 수많은 알제리인이 희생되었지만, 이 전쟁으로 알제리는 비로소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알제리의 항쟁은 '알제리 전쟁'이 처음이 아니었다. 항쟁의 역사는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처음 침공했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당시 식민지배에 대항한 대다수의 국민 모두를 독립영웅이라 할 수 있지만, 그중 알제리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압델 카데르(1808~1883)는 현재까지도 알제리의 '정신적 지주'로 칭송받는다. 그는 전통 이슬람 교육과 근대 이슬람 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최후까지 프랑스에 맞서면서도 유럽에 이슬람을 전파하고자 했다.

압델 카데르 그는 누구인가

압델 카데르는 알제리 서부 마스카라(Mascara)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다. 이 지역은 이베리아반도에서 유입된 안달루시아 문화의 흔적이 많은 곳이다. 이곳의 대도시 틀렘센과 오랑 등지에서 성장한 그는 아버지로부터 독실한 이슬람식 교육(종교, 철학, 신학)을 받았다. 압델 카데르에게 독서와 함께 천짜기를 가르친 어머니 할라 조라 또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숭선수범을 강조하며, '종교적 인간은 사치가 없고, 늘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그녀의 교육관은 오늘날 알제리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827년 압델 카데르는 오스만 터키 지배하에 있던 알제리를 잠시 벗어나 아버지와 메카 순례를 떠났고, 그때 방문한 이집트에서 알제리의 근대화를 꿈꿨다. 하지만 프랑스는 '알제리 총독과 프랑스 외교관 사이의 마찰'을 빌미로 1830년 알제리 침공을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오랑시의 항전 지도자로 나서는 것을 보며 24세 젊은 나이에 에미르(Emir, 군사령관)에 추대되었다. 주요 부족들이 그의 신앙심과 전투 역량, 통솔력을 인정하고 따



압델 카데르의 초상화(위)와 동상(아래)

랐기 때문이다. 초기 식민 과정에서 프랑스의 약탈과 파괴는 견잡을 수 없이 잔인했다. 이에 대항할 알제리의 인력과 무기는 한없이 부족했고, 압델 카데르는 최고의 전법으로 '매복'과 '게릴라전'을 모색하여 실행했다. 그의 활약으로 프랑스는 1836년 휴전을 제안했고, 압델 카데르는 알제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842년 당시 프랑스 본국에서 온 새 총독은 '아랍인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알제리를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알제리인을 정규군 등에 징집했고, 프랑스군의 앞잡이로 활용했다. 프랑스가 공언한 무자비한 탄압 작전이 먹혀들었으며, 그 결과 프랑스가 처음 침공했을 당시 300만 명이었던 알제리 인구는 1872년 200만 명으로 줄었다. 민간인 희생자는 물론 전사자, 전염병, 기근 등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압델 카데르는 결국 패장이 되었다. 프랑스는 프랑스군의 앞잡이를 활용하여 알제리인을 강제로 체포했고, 이에 따라 저항이 거셌던 카빌리 지역의 알제리인들마저 프랑스에 투항하고 말았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압델 카데르 또한 1847년 12월 23일 프랑스에 항복했다. 3명의 부인과 자녀들, 일부 부하 97명과 함께 프랑스의 포(Pau) 지방에 수감된 압델 카데르는 이후 르와르(Loire) 지역의 앙부와즈 성으로 옮겨졌다. 이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옮겨진 그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알제리 독립전쟁'에 미친 영향

1830년부터 식민지배를 받은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의 수탈로 더욱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다. 1867년~1868년의 대기근으로 민중의 삶은 더 처참해졌고, 카빌리에서 봉기까지 발생했다. 오랑에서도 같은 식의 저항이 이어졌다. 하지만 독립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운동으로 방향을 틀면서 1926년 '북아프리카의 별'이라는 단체가 알제리 최초의 민족운동 조직체로 탄생했다. 이 단체는 압델 카데르의 손자 하즈 알리 압델 카데르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압델 카데르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다. '북아프리카의 별'은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되었다. 알제리 엘리트와 파리 이민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투쟁한 민족운동이었으며, 알제리 독립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통일을 염두에 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은 압델 카데르의 이슬람운동이 민족운동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주장했고, 마침내 8년간의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1962년 독립 후 알제리 정부는 압델 카데르의 유해를 시리아에서 알제리로 이장했다. 그는 단순히 반(反)프랑스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이 아니라 독립국가 알제리인의 자부심이자 상징이 되었다. 현재 수도 알제의 변화가에는 압델 카데르의 기마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배 당시 프랑스 장군 동상이 있었던 장소이다. 알제리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이곳에 세워진 그의 기마상은 알제리의 상징이자 곧 자부심이다.

알제리의 영원한 심장

독립 이후에도 알제리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1989년, 사회주의에서 다당제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 하지만 유가하락과 경제파탄,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분노는 1990년대 이슬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때 새롭게 출범한 부테플리카(1937~2021) 대통령 또한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알제리인의 저항에 직면했다. 독립전쟁 세대들과 부패 정치인에 분노한 국민들은 '히락'(Hirak), 즉 '민중시위'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히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알제리 국민이 어떻게 싸워 이룬 독립인지'를 묻고 있다. 압델 카데르의 후예, 아프리카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국가, 이슬람과 자유를 독립정신으로 이어온 알제리의 심장에는 늘 압델 카데르가 있다.

최초의 한미동맹을 기억하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미국과 함께 한 독립운동>展

독립기념관 전시부 김송이 학예연구사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과 함께 한 독립운동> 특별기획전을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대일항전을 전개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자리이며, 특별히 미국 OSS장교 클라이드 사전트(Clyde B. Sargent)의 아들이 소장한 사진들을 수집하여 처음 공개했다. 김송이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전시를 개최하며

<미국과 함께 한 독립운동> 특별기획전은 한미수교 140주년¹을 기념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미 군사협작에 참여하였던 OSS장교, 클라이드 사전트의 소장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한국광복군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 OSS와 독수리작전을, 워싱턴 OSS 본부는 한국인 비밀요원들과 넵코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미군으로 참전하거나 한인경위대를 조직하였고 전시공채 구입 등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쟁을 도왔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미국과 함께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미동맹이 시작되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¹ 한미수교 140주년
1882년 조선과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었고,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² 넵코작전
적은 인원의 비밀요원들을 한국으로 즉시 침투시킨 후 결국 일본으로 들어가는 작전이다. 그곳에서 첩보·지하 조직 조성 등의 활동을 하고 파괴공작과 무장 저항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한국광복군과 OSS, 군사협작과 독수리작전

1941년 12월 일제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 이후, 일제는 한미 공동의 적이 되었습니다. 1945년 중국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대일항전에 참전하고자 했고, 미국의 전략첩보기구인 OSS는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에 대한 적후방 공작에 한국인들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광복군과 OSS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양측의 군사협작이 이루어졌고, ‘독수리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한미수교 이래 처음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일항전에 참전한 한국인들

1941년 12월 미국이 일제와 전쟁을 시작하자, 한국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대일항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미국의 승리가 곧 조국의 독립으로 이어진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OSS가 추진하는 넵코작전²에 참여하였고, 미군에 입대하여 직접 대일작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인경위대(맹호군)를 조직하고 전쟁비용을 마련하는 ‘전시공채’를 매입하여 미국의 대일항전을 돕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인들의 기여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공개한 한국광복군 OSS훈련 사진

2021년 독립기념관은 독수리작전 미국 측 책임자였던 클라이드 사전트의 아들, 로버트 사전트(Robert Sargent)로부터 독수리작전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입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전시를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사진트가 제공한 사진 48점 중에는 한국광복군의 OSS 훈련 실상이 확인되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선전신(통신)과 사격 훈련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헤드셋을 끼고 모스부호기계를 누르는 모습과 미국 교관의 시범을 보면서 총기훈련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간 광복군과 OSS 간 공동작전에 대한 사진이 7점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사진들을 통해 독수리작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공개한 한국광복군 OSS 사격훈련사진

↓ 최초 공개한 한국광복군 OSS 무선통신 훈련사진



독수리작전과 냅코작전 등의 비밀문서를 확인해보는 공간



학예사가 추천하는 관람 포인트

한국광복군 제2지대 이범석과 관련된 사진들, 한국광복군 제3지대원 김우전과 OSS 중국전구의 클래런스 위스(Clarence N. Weems)가 힘을 합쳐 완성한 한글암호표, 한국광복군 OSS훈련 당시 사용한 동종의 총기(스프링 필드 소총, 톰슨 기관단총), 미군에 입대한 안창호 자녀들의 사진, 한인경위대(맹호군) 사진 등에 주목하여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시장 내에는 독수리작전과 냅코작전 등의 OSS비밀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문과 영문으로 적힌 문서를 직접 꺼내어 읽어보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한국광복군과 미국 OSS 간 군사합작인 독수리작전이나 미국 OSS본부가 추진한 냅코작전은 모두 일급 비밀이었습니다. 전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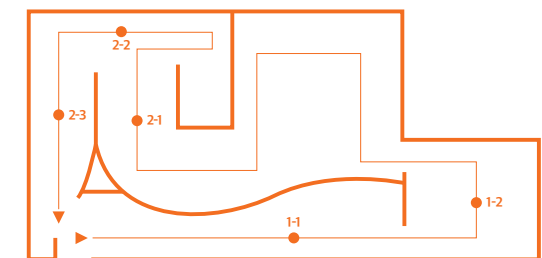
적인 유물을 보여줘야 하는데, 남아 있는 유물이 없는 상황에서 관람객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기억나는 점은 한국광복군 OSS 훈련과정에서 사용했던 총기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마침 동종의 총기류가 전쟁기념관에 소장된 것을 확인하고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협조해 준 전쟁기념관에 감사드립니다.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올해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의 독립운동은 연합국인 미국과 함께하였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알 수 있으면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독립운동이 조국 독립을 넘어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기간 2022.5.19.(목) ~ 8.28(일)
장소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실 1 제7관 내



1-1 한국광복군과 OSS의 군사합작
1-2 한미동맹의 시작, 독수리 작전
2-1 냅코작전과 산타 카탈리나 섬의 비밀요원들
2-2 미군으로 참전한 미주 한인들
2-3 미국의 대일항전을 도운 한국인들



독립기념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 달성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 11. 9.부터 ‘22. 2. 28.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독립기념관은 전년 대비 2.9점 상승한 91.69점을 획득했으며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족’을 달성하여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 성과를 거두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고객 VOC를 통해 고

객만족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ICT를 도입하여 주요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용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전시·교육 등) 제공 등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독립기념관은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Human) 중심의 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독립기념관, 어린이사랑 나라사랑 문화행사 ‘다채롭게’ 열려

독립기념관은 지난 5월 5일(목)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사랑 나라사랑’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행사였다.

이번 ‘어린이사랑 나라사랑’ 문화행사는 어린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블랙이글스 에어쇼, 육군 의장대 의장시범, 어린이 인형극 마술, 어린이 치어리딩 퍼포먼스, 어린이 극단, 문화음악, 태권도 시범 공연 등이 펼쳐졌다. 부대행사로는 제3·5전시관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을 주제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관람객 대상 체험 교육과 커피문화와 독립운동을 융합한 신규 해설프로그램 ‘독립과 가배도 선보였으며, C-47 수송비행기 탑승행사, 무료사진인화 서비스, 키다리 피에로 및 석고마임 등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은 충남사회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월 7일(토)까지 ‘따숨마켓’을 개최하였다. 그중에 어린이날 당일 열린 ‘어린이 따숨마켓’은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 체험

은 물론 중고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경제관념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바자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여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어린이사랑 나라사랑’ 문화행사 광경



독립기념관-SKT 공동, 국내 영상관 최초 MR독립영상관 ‘히어링루프’시스템 설치

독립기념관은 SKT와 공동으로 국내 영상관 최초로 ‘히어링루프(Hearing Loop)’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독립기념관과 SKT는 2020년 ‘5G MEC 기반의 AR·MR에코뮤지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 누구나 불편 없이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 제작 등 참여형 전시문화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일환으로 3·1절 103주년을 맞아 수어해설을 적용한 3D영상 콘텐츠 3편을 독립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행한 데 이어, 청각약자들이 더욱 실감나는 4D영상 관람이 가능하도록 국내 영상관 최초 MR독립영상관 내 ‘히어링루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히어링루프’란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약자들이 주변의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청취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MR독립영상관에서 보청기, 인공와우 사용자는 T-모드(Tele-coil Mode)로 설정하면 선명한 음질로 영상콘텐츠를 관람 할 수 있다.

‘히어링루프’시스템 설치 완료를 계기로 독립기념관은 지난 4월 30일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 초청 특별상영회(협회 회원 100여명)를 열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특별상영회 참석자들은 “선명한 음질로 영상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었다”라고 만족을 표하고, “일부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히어링루프’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니 국내에도 ‘히어링루프’시스템이 하루빨리 설치·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독립기념관은 MR독립영상관 내 ‘히어링루프’시스템 조성을 시작으로, 전시 교체가 예정된 상설전시관에도 ‘히어링루프’시스템 설치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약자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 초청 특별 상영회



‘히어링루프’시스템 안내 포스터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QUIZ TIME

이번 호 '독립기념관'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꼼꼼히 읽다 보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WHO?



1)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OO(윙희황제)의 인산(장례)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이었다. (6-9페이지 참조)

2) 홍범도의 첫 번째 부인 단양 이씨는 남편의 의병활동을 지원하다가 일제의 모진 OO에 시달려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20-23페이지 참조)

지난 호 퀴즈 정답과 정답자를 공개합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1. 노무자
2. 박원희

지난 호 퀴즈 당첨자

김동석, 임봉주, 이단비, 김경호, 조상희
김한수, 남은옥, 권효정, 오슬기, 지승호

퀴즈에 응모해 주세요.

웹진-독자이벤트 바로 가기

6월 23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



엽서도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 앞 ※ 이름, 연락처 기재

Web-zine EVENT



「독립기념관」 웹진 '어쩌다 이벤트' 실시

독립기념관 웹진 6월호 '어쩌다 이벤트'에는
000번째로 입장한 구독자 세 분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간「독립기념관」

무료 구독 신청 및 해지, 주소 변경 방법 전 화 041) 560-0244 | E-mail sunny@i815.or.kr

상하이 의거 9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한인애국단, 1932년

Korean Patriotic Corps,
Their a righteous fight in 1932

그들의 임무



2022. 4. 28.(목) ~ 6. 26.(일) 특별기획전시실 II

독립기념관